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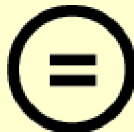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창업 역량을 매개 변수로-

2017년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김 종 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현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창업 역량을 매개 변수로 하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olicy on the Establishment Performance

- With the entrepreneurial capacity as a parameter -

2016년 12 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김 중 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현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창업 역량을 매개 변수로 하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olicy on the Establishment Performance

— With the entrepreneurial capacity as a parameter —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전공

김 종 식

김종식의 컨설팅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창업 역량을 매개 변수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컨버전스컨설팅 전공

김 중 식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국제적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기도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인원감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 역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큰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7개의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하여 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매년 창업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창업의 실패율은 줄어들지 않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청년들은 창업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꿈꾸며 창업은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위험한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40대부터 퇴사를 강요받는 중장년은 취업이 안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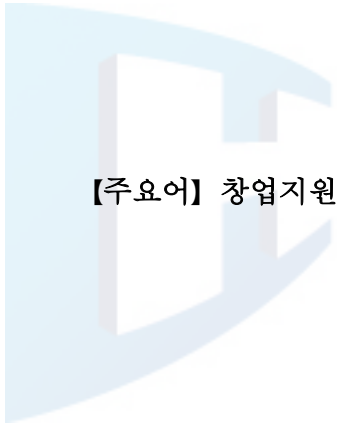
떠밀리듯이 치킨 가게 오픈 등 생계형 창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패로 말미암은 가게 부채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결국 그동안의 창업지원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 역량을 매개로 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창업 지원 정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들에 의해 지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고 정부 지원정책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창업자들의 창업 역량과 창업성과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또는 과거에 정부의 창업프로그램에 참가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재 대학의 창업지원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지원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자,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17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하였으며, 246부를 각각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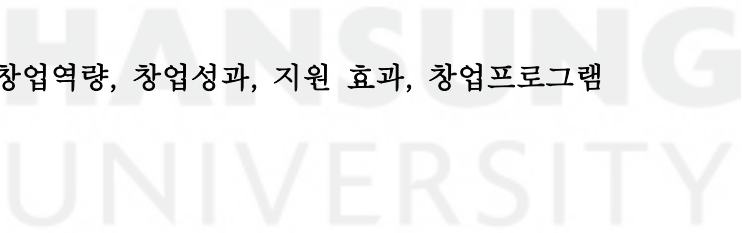
특히 창업지원 프로그램 즉 교육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지원 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정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고, 창업역량이 창업지원과 창업성과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지를 매개회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지금처럼 단기적 효과에 급급한 창업 지원 정책은 정부자금 사냥꾼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먼저 창업에 관한 인식부터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창업 인프라의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중고등학교부터 창업에 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창업 교육 전문가를 육

성하는 시스템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대비 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보다 효과적인 창업 분야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창업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창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창업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업 인식의 변화와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의 통일성, 그리고 지원 후 사후 관리와 함께 창업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어】 창업지원, 창업역량, 창업성과, 지원 효과, 창업프로그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5
제 1 절 창업과 창업의 유형	5
제 2 절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현황 및 선행 연구	9
제 3 절 창업 역량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31
제 4 절 창업 성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39
제 3 장 연구 모형 설계 및 연구 방법	43
제 1 절 연구모형	43
제 2 절 연구가설	44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45
제 4 장 실증분석	50
제 1 절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50
제 2 절 변수의 신뢰성 검증 및 타당성 검증	52
제 3 절 가설 검증	57
제 5 장 결론	62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62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65

참고문헌	67
설문지	75
ABSTRACT	80



표 목 차

<표 2-1> 창업교육에 관한 정의	6
<표 2-2> 지원분야별 사업수 및 예산액 분포 현황	10
<표 2-3> 창업지원정책선행연구	12
<표 2-4> 국외학자 창업교육 관점 비교	17
<표 2-5> 창업교육 문제점 연구	18
<표 2-6> 멘토 역량 선행연구	21
<표 2-7> cohen의 멘토 진단도구	23
<표 2-8> 멘토링 개념 변화과정	26
<표 2-9> 멘토링 기능분류	27
<표 2-10> 창업 멘토링 구성요소	28
<표 2-11> 정책자금 분류	29
<표 2-12> 자금지원정책 선행연구	30
<표 2-13> 창업가역량과 창업성과	38
<표 3-1> 연구가설	44
<표 3-2> 설문지 구성	47
<표 4-1> 응답자 성	50
<표 4-2> 연령	50
<표 4-3> 학력	51
<표 4-4> 직장 경험 유무	51
<표 4-5> 창업 경험 유무	51
<표 4-6> 회사 업력	52
<표 4-7> 요인분석	54
<표 4-8> 신뢰도 분석	56
<표 4-9> 창업역량신뢰도분석	56
<표 4-10> 창업성과 신뢰도 분석	57
<표 4-11> 상관관계분석	57
<표 4-12> 다중회귀분석	58
<표 4-13> 위계적 회귀분석	59
<표 4-14> 매개효과분석	61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4
<그림 3-1> 연구 모형	4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맞물린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와 시장의 변화로 인한 기업들의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의 실업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신규 채용의 파격적 축소는 청년실업자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의 사회적 문제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여러 측면에서 고용에 관한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저성장이 점점 굳어져 가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근본적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 활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창업 열기를 높이고 동시에 실질적 창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 후속 조치로 창업교육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창업 성공률을 올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은 대부분 단발성 지원으로 실업자는 줄지 않고, 정책의 기본 역시 매해 비슷한 기본틀을 견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 인재 양성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각종 학교, 예를 들어 비즈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대학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단, 창업선

도대학 지정등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여러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형식에 얽매인 자금지원과 일방적 창업교육, 방향성 잃은 대학에서의 창업수업, 체계적이지 못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등으로 이루어져 그 실효성에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에서도 창업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창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에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는 창업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창업지원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부의 하향식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다.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단순히 사업계획서 검토와 간단한 대면 면접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창업가들을 걸러낸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또한 창업교육측면에서는 창업 교육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고 실제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개인별 맞춤 창업 교육을 위한 콘텐츠, 창업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역시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박용태,김용태.2009).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여하히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성공적 창업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 교육 강좌, 멘토링 지원 중 창업자들의 역량을 향상 시키되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실증해보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창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공 창업을 가능토록 하는 정책적 창업지원은 무엇인 지 연구기로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연구 배경에서 언급 되었듯이 정부의 창업에 관한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멘토링 지원, 강좌 개설이 창업자들의 역량을 여하히 향상시키고 창업 성과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지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선행된 연구 조사, 문헌조사, 설문 조사 등 여러 연구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와의 상관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구 국가의 예처럼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창업성공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창업지원 정책 중 주요 세가지 즉 자금 지원, 멘토링 지원, 교육 강좌 지원을 원인 변수로 설정하고 창업 성과를 결과 변수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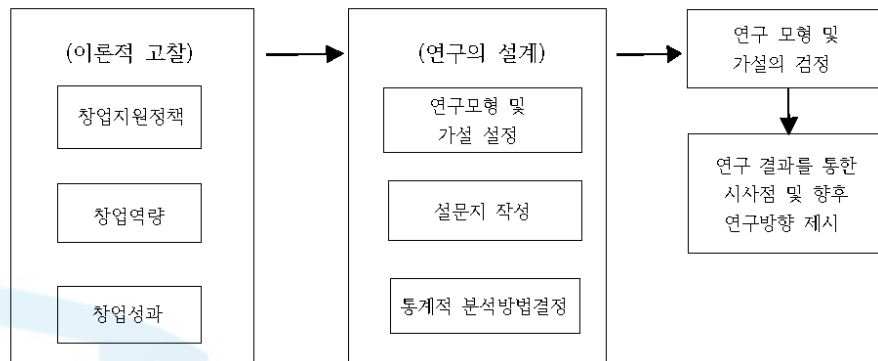
또한 창업역량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의 정확성을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실증적 검증을 병행하였다. 즉 창업 역량과 창업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후 시사점과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정부의 창업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조사와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으며, 창업의 성공을 이끄는 창업역량과 창업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현재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창업에 관한 지원

을 받고 있는 기창업자,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각 척도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등을 SPSS Statistics 22 통계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 분석 중 더미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도하고 매개변수 효과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실증 분석의 차별화를 시



도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우선 1장은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및 구성을 설명한 서론이며, 제2장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현황과 선행연구, 창업 역량에 대한 이론적 고찰, 창업 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 제 3장은 연구 모형 설계 및 연구 방법, 제 4장은 실증 분석, 제 5장은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서술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창업과 창업의 유형

1) 창업의 정의 및 창업 기업의 범위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네이버 법률적 의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1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등 기업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 승계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최순영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 강화와 성공창업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p12.). 학문적으로 창업을 정의하면 드러커는(1985)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창업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학문적 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홍성도는 창업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 기회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등 경영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홍성도,1998).

서정민(1999)은 창업이란 “사업(일)을 창조하는 것으로 경영목적과 계획 하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 또는 시스템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체로써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서정민,1999).

박대희(2009)는 창업이란 “수익을 얻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과 자원을 동원하여 특정한 제품(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대희,2009).

<표 2-1> 창업 교육에 관한 정의

연구자	창업교육의 정의
Ronstadt	사업에 대한 전반적 구상을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며, 기획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창업관련 기능, 태도, 정보, 지식등을 가르치는 것(Ronstadt,1985)
Hills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함양(Hills,1988)
Garavan & O'Kinneide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황 분석 및 계획 수립 능력을 획득하며, 창업가적 추진력과 자질,능력을 확보하고 여러 분석적 기법을 통해 위험회피 기법을 습득(Garavan & O'Kinneide,1994)
Kourilsky	기회를 인식하고 위험상황에 대비하는 자원을 배분하여 모험기업(Business Venture)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Kourilsky,1995)
Bechard & Toulouse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소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하며 교육하는 일련의 정형화된 교육의 집합체(Bechard & Toulouse,1998)
Gibb	종업원으로써 창업 및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사업을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영업(Self-employed)을 할 수도있는 잠재적인 기업가 및 기업 소유자에게 사업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Gibb,2002)
Rae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Rae,2004)
신윤철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 창업자로서 사업 경영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신윤철,2007)
최종열·정해주	창업교육으로 통칭되는 기업가정신 교육이란 미래의 창업기업가를 위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은 물론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인으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최종열,정해주.2008)

출처: 이재석.(2015)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창업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영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민경룡, 20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보면 창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 의거하여 창업자에 대한 지원 적용 여부의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일로 규정”하고 있다(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조 2항).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 기업 컨설팅사업의 경우 7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등 창업기업이 넓은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본 연구 논문에서도 설립 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창업의 유형

창업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경영의 소유형태와 독립성 소유여부 등으로 사업을 분류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거나 법인으로 업하는 경우로도 나눌 수 있다.

창업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우선 업종에 따른 분류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판매 유통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제조업은 원료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며, 서비스업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나 일반적으로는 창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무형경제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판매 유통업은 생산 된 재화를 도매 소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독자적 브랜드와 아이টে으로 창업하는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으로도 나눌 수 있다. 사업의 경험이 없는 경우 이미 브랜드와 아이테의 인지도가 있고 원료 공급 과 인테리어광고 홍보 등에서 유리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사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창업을 하는 혁신형 창업과 기존 시장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창업하는 모방창업이 있다.

점포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점포형 창업과 점포없이 사업을 개시하는 무점포창업으로도 나눌 수 있다. 점포 창업은 의미 그대로 창업시에 특정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점포가 없이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점포 창업이다. 무점포 창업은 사업장 마련이라는 부담이 없어 보통은 무형의 지식 정보 서비스 비스가 이루어진다.

3) 창업의 중요성

2013년 이후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면서 창업의 필요성 내지는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창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검증되고 있으며 경제의 혁신성과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창업의 활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창업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창업에 대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는 36개국 분석을 통해서 창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Raynolds(1999) 등 다수의 학자들도 창업을 통하여 지역 고용이 증대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다.

국내 사업체 증가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로는 가동사업체 수의 증가폭이 계속 하락되고 있다.

국내 창업 활력을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이 최저 수준이지만 생계형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어렵게 창업하고 쉽게 문을 닫는 과정에서 폐업률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업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다각적 측면의 지원을 통하여 창업 활력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창업 활력도를 갖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을 고찰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자 한다.

제 2 절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현황 및 선행 연구

1) 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현황¹⁾ 및 문제점

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이전의 정부와 크게 다른 것은 없으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를 화두로 이전 정부와는 차별성 있고 미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 목표를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는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클라우드 펀딩, 엔젤 투자 확대, 간이 회생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²⁾ 위와 같은 전략은 결국 산학연 통합, 펀드,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정부와의 지향점은 동일하지만 진행 방식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실제 효과있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평가와 체크가 늘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선 정부와는 다르게 펀드 구성을 국민참여 형태로 시도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자칫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선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참 젊은 시절을 고시생, 공시생, 스펙 쌓기로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창업 시도에 대한 안전 장치와 인식 전환이 있어야 청년층의 창업도전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창업실패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제도적 방패막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만의 개별적 사업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범

1) 관계부처합동, ‘정부지원사업 효율화방안’, 2015.

2) 이윤준, 창조경제시대활성화방안, 과학기술처, 2013.

부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정책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윤준, 2013).

가) 지원 사업현황

정부의 창업에 관한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인프라 구축과 투자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창업과 사업화에 대한 여러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100여개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부처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창업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15년 기준으로 전체 창업지원 사업의 수(중앙부처기준)는 9개 부처 9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투.융자를 빼면 일통상적인 창업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2015년 기준 6,020억원의 규모로 책정되어 이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 사업이 47개로 가장 많고 미래부 사업 39개 사업,문체부 4개 사업,농식품부 3개순이며 그 외 부처는 2개 이하이다.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이 12개,창업 교육과 시설 공간 제공이 각각11개, 네트워킹 행사가 10개로 나타났다.

<표2-2> 지원분야별 사업수 및 예산액 분포 현황

구분		사업화	판로 마케팅 해외진 출	창업 교육	시설 공간	네트 워킹 행사	R&D	멘토링 컨설팅	소 계	총계
전 체	사 업 수(개)	40	12	11	11	10	6	4	94	99
	예 산 액 (억원)	2,433	234	238	918	34	2,016	146	6, 020	211, 720

출처:이윤준,창조경제시대활성화방안,과학기술처.2013

나) 현행 지원 사업의 문제점

(1) 복잡한 전달 체계

정책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복잡한 창업 지원 사업의 전달 체계를 단순화하고 효율화하여 선진국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간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온 각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ICT분야 창업 벤처 통합 연계 방안을 수립하였고 28개 사업을 K-Global 통합 브랜드를 통하여 새롭게 출범시켰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8개 창업 정보시스템을 창업넷으로 통합하여 창업 정보에 대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다양한 창업지원시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신청 과정상의 부담

사업 전 주기 즉 신청, 선정, 협약, 사업 종료 등에 있어 해당 단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부처별 기관별로 제출 서류 양식도 서로 달라 창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양식의 통일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3) 선발 평가의 비전문성

창업자의 역량 여부, 사업의 발전 여부 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잘 맞춰 제출하는 창업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제 창업을 경험한 사람이거나,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등 창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멘토링 및 교육의 질

민간의 창업 생태계 구성원 즉 벤처캐피털, 엔젤, 성공벤처인 등을 통한 교육 만족도는 높게 나오나 공공 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5) 지원 자금 사용의 경직성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에 대한 용도가 사전에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어 기업의 현장에서는 자금 집행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무비 25%, 원재료 구입비 10%, 로열티 10% 등으로 너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금 집행의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창업지원 정책 선행 연구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지원정책은 크게 사업화 지원, 교육지원, 용자를 포함한 자금지원, 멘토링, 컨설팅지원, 마케팅지원, R&D 지원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표2-3> 창업지원 정책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Johnson (1990) ³⁾	창업자에게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훈련, 사후관리 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Gartner & Vesper (1994)	창업자의 잠재적 능력과 특징의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특별한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 준비 공간 및 창업 자금 지원 등을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요소로 보았다.
Vangelis & Stefania & Andreas (2007) 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요소를 창업프로젝트 팀, 대학이 보유한 기술, 자문 위원과 동료의 조언, 정보센터, 졸업자와의 네트워크, 창업경진대회, 창업자금, 투자자, 연구소, 정보공유 등 총 11개로 분류하였다(강영욱, 2013) ⁵⁾
박봉삼 (2007) ⁶⁾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를 위하여 창업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창업 준비단계에서 창업자특성, 사업아이템 선정, 점포특성의 3가지 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김용집, 2014) ⁷⁾
이충섭 외 (2009) 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무성과, 고객성과, 내부과정 성과, 학습 성과로 구분되는 균형성과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분석 하였다(김용집, 2014) ⁸⁾ .
최동락 (2012) ⁹⁾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에서 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만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상순 (2012) ¹⁰⁾	정부지원서비스의 조절효과는 소상공인 창업과정과 사업성과 면에서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이 유의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지원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김용집,2014) ¹¹⁾
김순태 (2013) ¹²⁾	정부지원정책과 기업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정부지원정책 요인은 교육지원,자금지원,컨설팅지원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영업차별화전략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컨설팅지원으로 나타났으며,교육지원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Johnson, B. R.,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6 No. 1, pp. 39-54, 1990.
- 4) Vangelis, S. & Stefania, Z. & Andreas, A. L.,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at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Elsevier, Vol. 22 No. 4, pp.556-591, 2007.
- 5) 강영욱,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실행의지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와 자기 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 6) 박봉삼, “소상공인 창업의 단계별 성공요인과 지원방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 7) 김용집, “창업지원 정책과 고용률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근 3대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 8) 이충섭, 이남주, 김준호, “소상공인의 시장 환경특성과 지원서비스가 균형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회계정보학회지, 제27권 제1호, pp. 261-284, 2009.
- 9) 최동락,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0) 김상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1) 김용집, “창업지원 정책과 고용률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근 3대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 12) 김순태, “소상공인 특성과 정부지원 정책요인이 사업전략 및 경영성과연구 충북대,2013

가) 창업 교육 선행 연구

(1) 국내 선행 연구

창업학이 국내에 도입 된 것은 일부 대학에서 창업관련 과목들이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부터 이다. 그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조병주, 박춘엽, 배종태 등 소수 선도 역할을 하던 학자들에 의해 창업학 및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졌다. 이들 초기 학자들의 연구는 창업학 도입에 필요한 제반 주제들 즉창업교육의 현황, 창업교육의 결정모형, 효과적인 교수법 교육과정 개발등을 다루었고, 이들의 연구는 창업교육의 주제 및 연구에 대한 방향을 비춰 주었다. 그러나 많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이 있었고, 몇 분의 학자 등에 의해 겨우 창업학이 소개되는 정도이기에 본격적인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의 창업교육과 관련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가 양성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어윤배,1993), “강좌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창업교육 실태연구”(박춘엽,1993), “창업교육의 교과내용 결정모형과 전공과정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조병주,1996), “창업 및 창업학의 국내외 동향 연구”(박춘엽,1997), “창업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정화, 이명자, 1998),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연구”(배종태, 1998), “창업교육의 교육과정 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조병주, 1998), “새로운 창업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조형래,1998)등이 있다.

국내의 교육기관에 대한 창업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1990년 대 말에 이루어졌다.Vesper의 창업관을 소개한 연구(조병주,1996)에서는 현실 속 대부분의 창업행위가 우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의도적이고 체계적 노력을 통해 창업기회를 탐색하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일반 사업관계 지식, 일반 창업관계 지식, 기회관계 특수 지식, 그리고 벤처관계 특수지식으로 분류되고, 이를 창업에 필요한 전략, 기법 및경험으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과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조병주,1996).

1990년대 후반 IMF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의 기본 구조와 패러다임이 변

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창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창업대학원 즉 전국의 5개 권역에 중앙대(2004), 호서대(2005), 한밭대, 경남과기대, 예원예술대가 생기면서 창업교육이 대학원에서 체계적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의 창업교육과 관련한 주요 연구로는 경영 교육자의 새로운 기회와 과제인 “청소년을 위한 비즈니스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조병주,2003), “창업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반성식,2003), “실업계 고등학교 창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연구”(박윤희,2004), “창업 교육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한길서,2007), “창업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한주희,고언정,2007),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창업 교육현황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김주미,오상훈,양재경,2007)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헌배,2008), “학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재환,김용태,2009)등이 있다. 2006년 창업대학원에서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창업 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논문이 크게 늘어났다. 창업교육에 관한 주요 학위논문으로는 “대학 창업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안승권,2009), “Babson College 사례를 중심으로 한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창업교육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조권래,2007), “창업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종서,2008), “한국 대학원의 창업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이시화,2008),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창업 교육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김용태,2009), “대학의 창업교과과정 표준안 설계에 관한 연구”(정혜리,2010)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창업교육의 실태 및 창업 교육의 성과, 정부의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창업대학원의 창업교육 실태와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2) 국외 선행 연구

국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효과와 창업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 Timmons에 의해 창업 교육의 효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

다.(Timmons,1999). Timmons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것이기 보다는 Team work 등에 대한 다양한 학습활동 등을 수행하는 교육 및 환경을 통해 얻게 되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 의지를 더 제고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창업가들에게 있어서 창업교육의 실시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cGrath(1999)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실패를 학습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서의 실패를 줄여준다”고 하였으며, Cohen etal.(1994)은 “창업교육이 비전, 창의성, 직관, 의식 및 상식 등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한정희,김정호, 2013 재인용).

또한 Kirzner(1997)는 “창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불확실성 때문이며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지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창업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교육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교육과정에서 개인에게 성공한 창업가와 같은 역할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Kirzner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창업교육을 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찍이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한 이후 학문적 발전을 거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이처럼 창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첫째, 기존 경영학의 교육내용이 실용정보보다는 도구적인 면이 강하며 대기업 중심의 교육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1980년대 창업교육에 대한 강력한 수요 창출 이후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Solomon, Fernald & Weaver, 1993; 박재환 · 김용태, 2009 재인용).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발전 및 창업 활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창업

교육의 실시가 요구되며, 점점 양산되는 청년, 중장년 실업자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창업교육 과정의 개발과 조속한 실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창업교육의 중요성 및 유효성을 강조하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육의 체계화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 정부 주도로 창업 교육(강좌)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여러 대학 및 관련기관 등에 창업교육 강좌가 개설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창업교육이 갖는 중요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아주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2-4> 국외 학자들의 창업 교육에 관한 관점 비교

구분	Ronstadt (1985)	McMullan&Long (1990)	Vesper(1988) Start-up Position	Shapero (1982)
창업에 관한 관점	New School	GrowthVentureP osition	Start-up Position	Entrepreneurial Event
강조점	체험적 학습 방법	전략과 창조성	창업 계획	창업발생 조건과 개인 동기 요인
창업 교육의 범위	창업과정에 따른 교과목 설계 (순차적 학습구 조를 반영하도 록 정형적 과목을 학습 ↓ 비정형적 체험 학습)	창업초기과정과 성장 진입단계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확실 성, 위험부담, 사업경영 능력, 창조성과 혁신등 을 반드시 포함)	창업의 시작 단계로 한정 (일반적 사업지 식, 일반적 창업 지식, 창업 기회 와 관련된 특정 지식, 창업기회 를 실제 창업으 로 연결할 수 있는 창업관련 특정지식)	창업발생조건 (부정적 선택 요인, 과도기적 선택 요인, 적 극적 유인) 개인동기 (창업욕구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인식) 창업지식 및 기술

출처:(정지호,2014)

(3)창업교육의 문제점

창업교육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예비창업자에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창업교육은 대학교(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그런만큼 양적인 증가도 이뤄지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래는 현재 국내 창업교육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표2-5>창업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구자	문제점
이신모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용, 교육담당자의 자질, 자원체계가 부족함.
정헌주와 유은혜 (2006)	· 정부 및 학교에서 창업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매우 저조함. · 창업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부족함. · 창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함. · 창업교육에 대한 국가, 기업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함.
한길석 (2007)	· 2000년대 이후, 대학 및 민간, 지방자치 단체들을 위주로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창업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함. · 대학과 대학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비즈니스 마인드와 경영, 경제적 사고를 길러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최종인과 양영석 (2012)	· 대학 및 대학원, 창업 전문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교육은 단편적이고 단발적임. ·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경험, 능력을 갖춘 창업 교육 전문가 및 창업코칭 전문가가 부족함.
황보운과 양영석 (2012)	· 창업교육시스템과 검증된 창업교육 콘텐츠, 창업 전문 강사진이 부족함.
김상수 등 (2013)	·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창업 교육 콘텐츠, 능력을 갖춘 전문 강사들이 부족함.

출처:(한정자,이명자,1998)

나) 창업 멘토링 선행 연구

(1) 멘토의 개념

일반적으로 멘토는 특정 분야에 오래 몸담고 있어 멘티들에게 방향을 제시

해주고 조언을 하는 스승, 조력자를 일컫는다. 멘토(Mentor)의 어원은 나오는 고대 트로이 전쟁에서 당시 왕이었던 오디세우스(Odysseus)가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의 아들 텔레마쿠스를 오래 친구인 ‘멘토르(Mentor)’에게 교육을 맡기게 된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귀국하기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그는 친구 아들 텔레마쿠스의 상담자 때로는 스승이 되어 충실히 보살피 주었고 본인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 된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멘토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vinson & Mckee는 “멘토란 특정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장자”라고 정의하였고(Levinson & Mckee1978), Hunt & Michael의 연구에서는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더욱 나은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테제¹³⁾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통상적으로 8살에서 15살연상이며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라고 규정하였다(Hunt & Michael,1983). Kram은 “멘토란 그들이 속한 조직 내에서 개인 및 조직의 이익은 멘티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통해 멘티의 개별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 하였고(Kram,1983), Noe는 “특정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장자로서 후배들의 역할모형이 되어 조직 내 초기 구성원들의 경력과 대인관계 등에 대한 조력을 하는 사람”이라 규정하였다(Noe,1988)

(2) 멘토의 역량 이론

(가) 멘토역량의 정의와 필요 역량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토의 역량이다. 멘토의 역량에 따라 멘토링의 성공 여부가 좌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멘토 역량을 정의 할 때 선행연구에서는 특징(traits), 특성(Characteristics), 태도(attitude)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멘티(mentee)와 멘토(mentor)와의 역학관계를 통

13) 프로테제는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멘티(mentee)의 학술적인 용어로 써, 불어로 ‘피보호자’의 의미(Murray, 2001)

해 나타날 수 있는 역량으로 말할 수 있다.

Mullen는 멘토가 가져야 할 역량으로 부하에 대한 영향력(influence), 조직에 대한 자기 존중감(self-esteem), 부하 직원의 역량 지각(perceived mentee competence) 등을 제시하고 있다(Mullen, 1998)는 멘토링 기능에 필요한 멘토 역량으로 사회적 판단능력(social judgement capabilities)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판단능력은 지식(wisdom), 사회적 통찰력(social perceptiveness), 도덕적 또는 사회적 추론능력(moral and social reasoning ability) 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osik & Lee, 2002)

Campbell & Dardis는 경력 향상시스템(career progression system)이라는 ‘BKD 역량모델’로 제시하는데 이 모델은 미 육군에서 50여 년간 활용되어 온 모델이었다(Campbell & Dardis, 2004). “BKD 모델은 Be, Know, Do로 표현되는 리더십 개발모델로서 가치관이나 속성 등과 관련되는 리더에 관한 특성(Be), 대인관계 기술(interpersonal skills) 및 개념적 기술(conceptual skills), 기능적 기술(technical skills) 등과 연관되는 역량(Know), 영향력(influence)과 수행(operating) 및 개선(improving) 등을 나타내는 행동(Do)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에서 제시된 리더십 역량 중에서 대인관계 기술은 멘토 역량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Campbell & Dardis, 2004).

이외에도 Smith, Howard & Harrington은 “텔파이 기법을 통하여 멘토 과위, 멘토의 개성, 멘토 역량 등이 멘토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Smith, Howard & Harrington, 2005) 이 가운데서 인격(respectability), 지식(wisdom), 감수성(sensitivity)을 멘토의 역량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지식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Smith, 2005; 안호준, 2008). Allen & Poteet는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한 멘토의 특징은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경청 및 의사소통의 기술(listening and communication skills)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Allen & Poteet, 1999).

Wilson은 원칙에 근거한 멘토링(principled mentoring)에 강조점을 두면서

“부하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조직성과는 멘토가 보유한 가치의 본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Wilson,1998). 또한 그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멘토를 원칙이 있는 멘토(principled mentor)라고 하며 이러한 멘토는 청렴, 용기, 돌봄 등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멘토의 성격을 가치와 동일시하고자 하였다(Wilson,1998).

영국의 멘토링 전문가 Clutterbuck(2014.최병권 인용)은 멘토가 갖추어야 할 멘토의 역량으로 다음의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성격, 인지스타일, 가치 및 기대를 이해하는 자기인식 능력, 타인 이해능력, 업무전문성, 유머감각, 소통능력 그리고 멘티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구조화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개념화 능력, 학습에의 몰입, 타인 성장에 대한 관심, 관계형성 능력,목표 명확화 능력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멘토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에 관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2-7>와 같다.

<표2-6> 멘토 역량 선행연구

연구자	멘토 역량
Barr(1988)	· MBTI에 의한 성격유형
Bloch(1993)	· 친근한 태도(a pleasant and friendly manner)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good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skills) · 적극적인 경청기술(active listening skills) · 건전한 경영방식(sound businessawareness)
Mullen(1998)	· 부하에 대한 영향력(protege influence) · 조직에 기반을 둔 자기 존중감(OBSE) · 부하의 역량지각(perceived protege competence)
Allen & Poteet(1999)	경청 및 의사소통 기술, 인내,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지식, 타인이해, 정직, 진실한 관심, 사람중심, 비전과 체계, 상식, 자기 확신, 자유로운 제안허용, 정보공유, 리더십특성, 부하의 실수허용, 다재다능함, 타인존경, 합당한 목표 설정, 가르치는 능력, 피드백 제공, 공정성 및 객관성
Willson(1998)	· 청렴(integrity), 용기(courage), 돌봄(care)
Sosik & Lee(2002)	· 지식(wisdom), 사회적 통찰력(social perceptiveness), 도덕적, 사회적 추론능력(moral and social reasoning)

	ability)
Darwin(1999)	· 진실성, 유동성, 배려, 접근성, 능력, 격려, 양심, 근면
Fawcett(2002)	· 인내, 열정, 지식, 유머감각, 존경
Cambell & Dardis(2004)	·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 적극적 경청(activelisting), 감독기술(supervising), · 상담(counseling)
Smith,Howard & Harrington(2005)	· 인격-정직, 청렴, 높은 윤리의식, 태도 및 인품 · 지식-조직이해, 전문능력, 조직의 핵심 가치, 가르치는능력 · 감수성-감정이입, 동정 및 이해, 진실, 확신
Clutterbuck(2014, 최병권 인용)	자기인식 능력, 타인 이해능력, 업무전문성, 유머감각, 소통능력, 개념화능력, 학습에의 몰입, 타인 성장에 대한 관심, 관계형성 능력, 목표 명확화 능력

출처 : (이상호, 이만기, 2006년)

(나) 멘토역량 진단

멘토링에서의 성공 관건은 멘토의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멘토가 보유한 전문적 지식의 풍부함 또는 창엽의 많은 경험만이 멘토의 역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오히려 멘토가 멘티와 어떻게 잘 소통하는 지, 멘티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지 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학자들의 멘토의 필요 역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osil & Lee(2002)는 “멘토링 역할 수행에 필요한 멘토의 역량으로 사회적 판단 능력(social judgement capabilities)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판단능력은 지식(wisdom), 사회적 통찰력(social perceptiveness), 도덕적 또는 사회적 추론능력(moral and social reasoning ability) 등으로 성되어졌다”고 했다(Sosil & Lee, 2002). 이러한 사회적 판단능력은 멘티의 창엽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Sosil & Lee, 2002)

Cohen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행동 유형을 제시하면서 멘토가 멘티 스스로 자각과 책임감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고자 했다(Cohen, 1995). 다음의 <표 8>은 Cohen의 멘토의 핵심 역량 진단 도구를 나타낸 것이다(Cohen, 1995).

<표2-7> Cohen의 멘토의 핵심 역량 진단 도구

구분	개요	목적	멘토행동
관계 관련 행동	적극적, 공감적 경청을 통해 멘티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수용력을 전달하는 행동	멘티가 성인 학습자로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솔직하게 성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신뢰적인 분위기 조성	·적극적으로 경청 ·상황에 대해 개방적으로 질문 ·추론이 아닌 관찰에 기초한 피드백제공 ·감정이해를 확증하기 위해 지각 사용 ·비판보다는 공감과 섬세한 반응보이기
정보 제공 관련 행동	멘티의 개인적, 교육적, 경력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현재의 계획과 발전 과정에 대해 직접 상세한 정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행동	제공되는 조언이 멘티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을 얻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함	·멘티의 교육상태 및 경력 상황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 ·멘티에 대한 적절한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한 배경정보 검토 ·멘티의 적극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탐색적질문 ·고려사항들과 해결안들을 제안하기 ·사실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확인 ·의사결정 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적 판단 내리기
촉진자적 역할 관련 행동	멘티의 관심사, 능력, 아이디어 및 신념에 대해 깊이 멘티가 성취 가능한 개인적, 교육적, 경력 목표들을 멘티의 시야를 확장 시키기 위해 다양한 가정을 제공	멘티가 성취 가능한 개인적, 교육적, 경력 목표들을 위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도우면서 멘토가 제공한 대안책을 검토하도록 돕기 위함	·멘티의 시야를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가정을 제공 ·멘티가 생각하는 가정의 실험적, 정보적, 기초를 드러내기 ·멘티의 결정을 깊이있게 분석하여 제2, 제3의 가능성 제공 ·멘티의 목표에 대한 헌신과 진지함 살펴보기 ·멘티가 현재 경력발전을 추구하는 이유 분석 ·멘티가 선호하는 직업과 여가 상황을 검토
직면적 행동	멘티가 성인 학습자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직면한 사항을 회피하더라도 존중을 통해 다시한번 멘티의 도전을	멘티의 시야 확보를 돕고 변화의 필요성과 그러기 위한 멘티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다양한 관점에서 얻을수 있는 이익에 대해 멘티의 심리적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강구 ·멘티에 대해 건설적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멘티가 명백하게 모순적으로 행동하거나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유도하는 행동		직설적으로 조언하기 ·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우선적인 전략과 행동 에 초점을 맞추기 · 멘토의 영향력을 발휘 하기 위한 수단은 최소한 으로, 하지만 신중하면 서도 공식적인 것을 사용 · 직설적으로 조언하기 전이나 후에도 문제 상 황에 머물지 않고 멘티의 잠재력을 신뢰하기
멘토링 모델	멘토링을 보다, 친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멘티와 멘 토 자신의 경험 및 감정을 나누기	멘티 스스로 삶 의 변화를 주도 하도록 격려하기 위 함	① 멘티 스스로 자신의 다양한 상황을 성찰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 멘티가 자신의 변화 상 황을 정확하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질문하기 · 멘티와 함께 선택 가능 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멘티가 결정을 내렸을때 예상되는 결과들을 검토하기 · 멘티가 선호하는 미래를 결심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존중하기 · 멘티가 스스로 재능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출처 : (Cohen 1995, 김주섭 ,2008 재정리한 표 차용)

(3) 멘토링 개념과 기능

(가) 멘토링개념

현대에 들어 와서 멘토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다. 비단 기업 조직뿐 아니라 대학교, 각종 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직체에서 멘토를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창업과 관련하여 멘토링 시스템이 활성화 되면서 멘토링 개념에 대한 재정의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멘토링(Mentoring)에 대한 연구는 70년대 후반 조직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훌륭한 멘토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Levinson(1978)은 “멘토는 멘티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특정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연장자”라고 정의하면서 멘토링의 과정은 중요하고도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라고 하였다(Levinson,1978).

Flax는 “멘토링이 특정 분야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멘토가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고, 목표하는 성과를 올바르게 수행해 나가며, 초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후원, 지도 및 지원해주는 중요한 관계”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Flax,1968)

한편 Murray & Owen는 “효과적인 멘토링의 과정은 바람직한 멘티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최종적으로 조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과정 또는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인 조직 내의 전형적인 관리자 개발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Murray & Owen,1991)

Ostroff & Kozlowski(1993)는 “멘토링의 과정은 새로 입사한 조직의 신입 직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Ostroff & Kozlowski,1993).

문영주, 황미경(2007)은 “새로운 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간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물론 더 나아가 조직의 목표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문영주, 황미경, 2007). 이때 신입사원들에게 지도 및 후원, 기능을 하게 되는 상급자 및 기존 구성원들을 멘토(Mentor)라고 부를 수 있으며, 멘토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는 하급자와 후배들을 멘티(Mentee) 또는 프로테제(Protege)라고 할 수 있다(안호준, 2008).

남정인(2013)은 멘토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도움을 주게 되는 멘토와 수혜를 받게 되는 멘티 사이의 상호 교류과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남정인,2013). 특히 멘토링은 기업체 및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 각각의 조직 목표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멘토링과 멘토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Shea(1995)는 “멘토링이란 멘티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멘토와 멘티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Shea,1995)

Colley(2002)도 “멘토링은 정서적 및 도구적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호존중과 협력의 관계”라고 하였다(Colley, 2002). 박서영 외(2013)는 이러한특징에 근거해서 “멘토링은 멘티가 멘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현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은 통찰과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멘토는 본인이 보유하거나 경험한정보와 기술 등을 제공하는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고 멘티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멘토링의 개념에 부합된다고 하였다(박서영 외, 2013).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멘티와 멘토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멘토링 개념과 기능의 변화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수직적이고 하향 전달식의 멘토링 관계는 최근 들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동기부여 및 멘토 스스로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재충전하거나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되면서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 또한 멘토링의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남정인, 2013). 예를 들어 Darwin(2000)은 멘토링의 ‘기능주의적 관점’이 전통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수평적이고 상호의존적, 상호작용적과정으로 이뤄지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Darwin,2000).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멘토링이 더욱 중심이 되면서 효과적인 멘토링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표2-8>멘토링 개념의 변화 과정

구분	전통적 관점	새로운 관점
목적	· 멘티의 역량 개발과 학습	· 상호역량 강화 및 발전
수혜자	· 멘티	· 멘토와 멘티
특징	· 경험 많은 전문가와 초보자간의 위계적, 일방적 수직 관계	· 상호 의존적, 수평적 학습 과정 · 양쪽간의 호혜적 파트너십
역할	· 멘토-스승, 멘티-학습자	· 멘토와 멘티 모두 공동학습자 이면서 공동의 학습 촉진 자

출처 : Allen Eby & Lentz(2006), Zachary(2000) 인용

(나) 멘토링 기능

멘토링 기능에 관한 가장 선구적인 연구자인 Kram(1983)은 “공공부문의 조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방법을 이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멘토와 멘티 간의 상호 관계에 존재하는 기능을 9가지로 개념화하였으며 현재까지 멘토링의 기능을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Kram, 1983)

Kram(1983)은 멘토링의 기능을 크게 “경력관계 기능(career function)과 심리 사회학적 기능(psychosocial functions)으로 분류” 하여 제시하였다. 세가지 기능 중 역할 모델 기능이 심리사회적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그는 “경력 관련 기능(career functions)은 조직 내 멘토의 파워와 역량, 포지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심리사회적 기능(psychosocial functions)은 멘토와 멘티의 질적인 상호관계 및 감정교류 활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중에 Burke(1984)는 Kram(1983)의 2차원적인 멘토링 기능에 대한 분류를 수정 보충하여 멘토가 적절한 행동 양식을 제시하면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모델 기능(role modeling functions)”을 추가하여 아래의 <표 2-10>와 같은 3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였다.

<표2-9> 멘토링 기능 분류

경력 관련 기능	심리 사회적 기능	역할 모델 기능
후원 (sponsorship)	수용 및 지원 (acceptance and confirmation)	역할 모델 (role modeling)
노출 및 소개 (exposure and visibility)	상담 (counseling)	
코칭(coaching)	우정(friendship)	
보호(protection)		
도전적인 과제 부여(challenging assignment)	역할 모형(role model)	

출처 : (Kram, K. E., 1983. 문영주, 황미경 , 2007 재인용)

(다) 창업 멘토링 구성요소

지금까지 멘토링의 개념과 기능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방혜민은 “이러한 멘토링은 창업과정에 적용하여도 유용하며, 멘토링 기능을 Burke(1984)의 경력 관련 기능 및 심리 사회적 기능 그리고 역할모델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그 구성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방혜민, 2013)

이외에 Watson(2004)도 “창업성과(entrepreneurial performance), 성취 동기(performance motivation), 창업기술 및 경영기술(entrepreneurial & management skills) 등이 창업멘토링 모델의 구성요소로 설정되며

이러한 창업멘토링 과정에는 사업자 등록 등의 초기 창업 준비단계, 초기 시장진입 및 매출 증대, 구성원 채용, 생산성 향상, 이익 증가 등이 있으며, 개인적인 동기도 성취동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Watson(2004)은 또한 “창의성과 혁신, 창업기회 인식, 역할 모델, 위험성 등이 창업기술에 속하며, 경영기술에는 의사소통, 경영기획 및 재정 관리, 마케팅 및 운영, 인적자원 및 법률적 지식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표2-10>창업멘토링 구성요소

창업 행동	성취 동기	창업 기술	경영 기술
개인사업 설립	건설적인 비판 제공	창의성과 혁신	의사소통 기술
초기 단계 완료	가이드라인 제시	위험성	경영기획
사업수익 증대	경청과 반응	기회인식	일반적 경영기술
직원 채용 변화	관리 조력	역할 모델	마케팅 및 운영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관리
이익 증대			법률적 지식

출처 : Watson(2004), 남정인(2013), 인용

다) 창업 자금 선행 연구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자금 조달이다. 자금 조달은 사업에 있어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창업자들에게 주요한 관심사이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

단, 여성가족부등에서 다양한 창업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자금지원의 방식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 산하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사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지원이 대표적이다. 주로 시제품개발에 중심이 맞춰져 있으며 지원 여부는 사업계획서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이후 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성공이나 아니냐의 판단은 3개의 기준 중 2개를 충족시킬 경우 성공으로 판정내리고 있다. 그 3가지 기준으로는 사업자등록 여부, 고용 여부, 매출발생 여부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2016년 중진공 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3.51조원으로서 융자 방식에는 일반창업과 청년전용창업이 있는데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 직접 대출과 금융회사 대리 대출 두가지가 있다.

청년전용창업의 경우 중진공에서 직접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경우 기업당 금리 2.52%~3.57%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2-11> 정책자금 분류

정책자금 분류	내용
지원자금	총사업비의 9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성격의 자금을 지원 자금이라고 한다. 지원되는 지원자금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대 7천만 원이다. 대상은 창업 1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로 시제품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마케팅비로 5천만 원을 한도로 창업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는 부주관, 지방자치단체, 진흥원 등이 있다. 정부주관기관으로는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단이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아이템별로 각종 진흥원과 TP를 거점으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출연자금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성격의 자금이다. 기업에 지원되는 출연자금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대 2억 원이다. 대상은 매출이 발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격 기준은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각종 기업인증 등이 가점기준이 된다.
융자자금	융자자금의 대출 금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관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이 대표적이다.

벤처자금	벤처자금은 기업에 자본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민간주관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민간투자기관과 정부가 50:50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에 간접투자방식을 취하고 있다.
------	---

자금지원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를 연구해보면 아래와 같다. 선행 연구에서의 시사점은 정부의 자금지원은 창업의 초기 소요 자금을 의미하며, 창업의 실제 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창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투자 형식이 필요하나 융자형식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2> 자금지원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내용
Gnyawali& Fogel (1994) ¹⁴⁾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설명 하고 정부정책, 사회경제적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적 지원을 분류하였다(성창수, 2011) ¹⁵⁾
Blanchfloweretal (1998)	창업실행에 부(-)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창업에 필요한 금융자본의 부족이다.
남정인 (2013) ¹⁶⁾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자금, 입지, 시설을 제시했다.
정영순 (2008) ¹⁷⁾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은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고 생산관리 능력이 미흡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함.
전봉준 (2012)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는 받지 못한 기업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이런 기업의 경영개선효과는 영업 이익의 증가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개선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이 초기창업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공률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손무호 (2007) ¹⁸⁾	창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자금, 입지, 시설을 제시했다.
김용집, (2014) ¹⁹⁾	정부의 창업정책 중 신규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의 수는 증가시킬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도기업이 발생하면 다시 고용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연결고리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창업자금이 대부분 융자형식이라 창업 중 부도 처리가 되었을 때 개인적인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참고해보면 정부의 자금지원이 고용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위주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실제 창업 시에도 재창업으로 회생이 가능한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15)Gnyawali, D.R. & Fogel, D.S.,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제 3 절 창업 역량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1) 창업가 역량의 의의

근래에 창업가의 개인특성으로서 기존 연구에서는 도외시되었던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중 창업가의 역량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량적 접근법을 통하여 기존 개인특성연구에서 보여 왔던 한계점들을 보완하면서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창업성과를 보다 의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윤종록, 김형철, 2009).

역량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하여 왔으나 통일성을 찾기는 쉽지않다. Boyatzis(1982)는 “역량은 동인, 특성, 기술, 자기이미지 및 사회적 역할, 지식 등 개인의 내재된 특성이다”라고 주장하였다. Corbin(1993)은 “특정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이며 개인이 바람직한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주장하였다(Corbin,1993).

Baum, Loche와 Smith(2001)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과 같은 개인특성이다”라고 정의하였다(Baum, Loche와 Smith,2001). 또한 Spencer& Spencer(1994)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pencer& Spencer,1994)

Prantice,

- 15) 성창수,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박사학위논문, 2011.
- 16) 남정인, “창업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7) 정영순, “소액창업 지원프로그램, 경제적 성과, 월매출액 영향요인, 월순수익 영향요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2008
- 18) 손무호, “외식사업 창업요인과 경영성과, 창업자 태도간의 관계연구”,2007
- 19) 김용집, “창업지원 정책과 고용률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최근 3대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역량이란 원천적으로 능력과 관련을 가질수 밖에 없다. 역량의 유무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소경희는 “역량은 본래 직업 교육이나 훈련 분야, 혹은 성인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며 핵심기술, 핵심역량, 일반기술, 핵심자질 등 교육계에서 사용하는 역량관련 용어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하였다(소경희,2007)

이홍민(2009) 연구를 살펴보면 “역량이란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과학적 관리의 창시자로 불리는 Frederick Taylor가 업무를 세부적인 구성요소로 나눌 것을 제안할 때 ‘역량’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홍민, 2009). 그러다가 1973년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David McClelland에 의해 현대적인 개념의 역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McClelland(1985)는 “역량은 직무 기준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우수한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의 기초 특성이다”라고 정의하였다(McClelland, 1985).

Spencer, Spencer는 McClelland의 역량에 대한 개념화를 발전시켰으며,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특성을 역량”으로 보았다. 즉 역량을 “개인의 내적특성으로서 다양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는 행동 및 사고방식”으로 정의하였다(Spencer, Spencer1993)

Boyatzis는 “역량을 높은 성과와 평균 혹은 낮은 성과를 구분하게 해주는 특성으로 효과적 혹은 우수한 성과와 결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동기, 특성, 기술, 자기 이미지, 사회적 역할, 지식체계 등 특정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Boyatzis, 1982)

Chandler, Hanks는 창업가의 역량이 창업 시 기업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창업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창업가의 역량이 중요함을 의미한다(Chandler, Hanks, 1994)

2) 창업가 역량의 구성 요소

가) 시장 감지 능력

대부분의 창업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을 생산하여도 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마케팅에 대한 충분한 인식없이 물건은 만들면 팔린다는 자기 환상에 빠져 사업을 그르치는 경우이다. 따라서 마케팅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상품을 제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마케팅과 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이러한 점을 고객중심 가치로 표현하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창업가 입장에서는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창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Bird Barbara는 시장중심조직을 강조하면서 시장 중심조직의 핵심 전략적 능력은 시장지향성과 제품혁신이라 주장하면서 특히 시장인지와 고객유인능력을 기업의 중요한 능력으로 파악하였다 (Bird Barbara, 1988)

나) 기술적 능력

기술적 역량은 갈수록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타 기업보다 먼저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여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천이다.

특히 기술창업기업에서 기술적 역량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윤종록·김형철, 2009).

기술에 기반한 기술역량은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기술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술의 선택, 획득, 개선 및 활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포함한다(Barney, 1991). 기술역량은 치열한 경쟁 환경하에서 경쟁 기업대비 우수한 제품개발과 생산우위를 확보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전인오, 2012).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그 속성상 고도의 첨단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R&D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은 기술창업기업의 생존 및 성과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Zahra, 1996).

Zahra는 “기업의 핵심역량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는 기술이며, 가치창출 과정 및 가치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 및 고객가치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Zahra, 1996).

윤종록, 김형철은 “기업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주도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며, 비즈니스 전략수행을 위한 핵심요소로 기술을 주장”하였다 (윤종록, 김형철. 2009).

Chandler, Jansen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 역량은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며, 생산성이 높은 성공한 기술창업기업은 기업가의 기술적 기능적 교육수준이 높고 해당분야에서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Chandler, Jansen. 1994)

이재훈, 양현주는 “기업의 국제화에 있어 기업가정신, 기업가의 핵심 역량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기업가의 역량이 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보았으며, “기업가 역량을 마케팅 전략 역량, 기술역량, 네트워크 역량”으로 보았다. 그들에 있어 기술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기업이 현재 갖고있는 기술력이 시장을 어느정도 선도하고 있는지, 표준화의 정도는 어떤지, 모방 용이성, 혁신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이재훈, 양현주. 2011)

다) 전략적 사고 역량

기업의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무한경쟁의 시장 상황에서 경영에 관한 전략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잘 만들어진 전략은 구체적 실천 상황에서는 전술로 다듬어지고 그것은 비단 경영자나 임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 사원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요소이다. 더구나 전략적 사고 능력이야말로 사활이 달려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창업 기업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사고라는 개념이 자주 쓰이게 시작한 것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1960년대부터이다. 그 이전의 주관심사는 내부적으로 생산성에 관한 것이었다. 컨베이어 시스템, 인관관계론등은 1960년대 이전 생산성에 관한 주요 이론이었다. 그러다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결국 전략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Mitchelmor와 Rowley는 “목표 및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이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기업가 역량”이라고 보았다(Mitchelmor, Rowley. 2013). 조남신은 “벤처기업이 선점자로서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마케팅적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잠재적 경쟁자를 대상으로 진입장벽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요소”라고 하였다(조남신, 2003).

전략이란 다양한 변수속에서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에 대응하는 의사결정의 하나의 양식이다. 창업가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새로이 출시하여 시장에 진입한다. 따라서 창업단계에서 핵심적 의사결정은 많은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어떻게 확보하여 차별화를 가지느냐의 문제이며, 이의 근본적 해결은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Drucker(1994)는 전략을 “기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다 높은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업이론으로 정의”하였고, Barney(2002)는 이 정의에 기초하여 “전략을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방법에 대한 기업이론”으로 정의하여 그만의 자원기반관점을 전개하고 있다(Barney, 2002)

조남신(2003)은 “벤처기업의 전략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중심 대상이 되는것으로 시장진입순서와 벤처기업의 성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보았다. 그는 “벤처기업의 전략은 시장진입 순서에 따라 선점자, 조기 추종자, 후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선점자의 경우 기술적 우위, 자산 선점 우위, 구매자 전환 비용 등의 우위를 가지게 되나, 후발자의 무임승차 효과, 후기의 기술및 시장 불확실성 감소, 기술 또는 소비자 요구의 변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동시에 “마케팅 및 전략적 역량이 벤처기업의 선점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으로 들었다. 또한 그는 “잠재적 경쟁자를 대상으로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인 마케팅 및 전

략적 역량은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선호(2006)은 “제약산업의 전략군을 기업규모와 기술능력에 따라 Leader 전략군, Franchise 전략군, Entrepreneur 전략군, Fringe 전략군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전략군에 따라 기업들의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마케팅 능력, 재무능력, 경영관리능력이 서로 다름”을 발견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 얼마나 창업가적 전략을 취하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조남신, 2003).

Piercy et al.(1998)은 “국제화에 있어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경쟁기업보다 우수한 마케팅 전략 역량을 가진 기업이 높은 국제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통합 마케팅 및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에 있어 조직 내 의사결정 레벨과 내외부 관리 영역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조직 내 의사결정을 위한 권한이 높을수록 관리 영역이 내부 투자 영역에서 벗어나 시장과 비즈니스 전략 단위까지 향상 될수록 성공 기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즉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가의 마케팅 능력 및 전략적 사고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 수 있다.

이재훈, 양현주는 “기업가의 역량이 기업의 국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보았으며, 기업가 역량을 마케팅 전략 역량, 기술역량, 네트워크 역량”으로 보았다(이재훈, 양현주, 2011). 그들은 “마케팅 전략 역량을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보았다.

경쟁우위는 창업 기업의 초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심요소이다. 따라서 창업가야말로 경쟁우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제반 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설립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창업가의 역량이야말로 창업 기업의 성공과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위의 세가지 역량 말고도 창의적 역량, 조직화 능력, 관리능력 등 많은 필요 역량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역량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략적

사고 능력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성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창업 역량과 창업 성과

박동건과 최대정(2003)은 “창업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구분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창업자의 핵심 역량을 파악한 후 창업 성공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박동건, 최대정, 2003). 그 결과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사업지향성, 목표설정, 내적통제력 등을 도출”하였다. 나상균은 “창업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창업가의 특성에 따라 경영특성의 차이가 나는 지 그리고 창업기업의 경영특성이 경쟁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나상균, 2008)

분석 결과 “창업자의 연령, 학력, 경력은 경영전략, 조직관리, 혁신성의 실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록과 김형철(2009)은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Baum(2001)의 벤처성장에 대한 구조모형연구를 기반으로 “창업가 역량을 외생변수, 경영전략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장대성(2000)은 “창업가의 특성(연령, 학력, 창업경험)에

따라 창업교육의 내용에 대한 필요성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가의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결정이나 직무환경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서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대열·윤현덕은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 및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기술창업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규명”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 역량은 기술사업화 능력을 거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략적 사고역량이 기술사업화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전대열, 윤현덕, 2011)

<표2-13> “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공 및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 결과
박동건과 최대정 (2003)	창업가의 특성을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파악하여 창업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	자기보고식 역량 도구를 개발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역량은 사업지향성, 목표설정, 내적통제 소재 도출.
나상균 (2008)	창업기업의 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경영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창업기업의 경영특성이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창업자의 연령, 학력, 경력은 경영전략, 조직관리, 혁신성의 실행 정도에 영향을 미침.
윤종록과 김형철 (2009)	창업가 역량특성을 외생변수로 하고 경영전략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창업가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영전략을 통해서도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장대성 (2000)	창업가들의 창업교육 필요성을 분석하고 창업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분야, 경험 등의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내용에 대한 필요성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학력 및 업종, 창업경험에 따라 창업교육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예비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다르며 개인적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이 더욱 효과적
전대열· 윤현덕 (201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규명.	기업가 역량은 기술사업화 능력을 거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략적사고 역량이 기술사업화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출처:(임아름, 2015)

제 4 절 창업 성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1) 창업 성과의 이론적 고찰

현대에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과 측정 수단으로서 재무적지표를 우선시 하여왔다. 하지만 재무적 지표인 순이익, 시장점유율, 판매액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는 기업 활동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표식을 제공하지만, 과정이라든가 인식의 결과물에 대하여는 제대로 표현해내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의 측정에 있어 보다 정확할 것의 요구됨에 따라 기업들은 비재무적성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BSC성과지표 관리방법등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어떠한 것이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Cooper(1993)는 주로 “벤처기업 성과의 예측이 가능한 새로운 모형을 제안했는데, 그의 모형은 창업자 특성, 창업과정, 초기기업 특성 및 환경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들이 주로 개념모델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면서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Cooper, 1993)

Tsai는 성과측정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두 가지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성과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재무적 지표 이외에 인지된 직무성과 만족도, 만족도의 조직 유연성 등 주관적 지표가 추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Tsai, 1998)

Venkataraman & Ramanujam (1986)은 여러 요인들을 다차원구조로 파악하여, “첫째, 재무적 지표로서 투자자본 수익률,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등 재무성과, 둘째 비재무적 지표로서 시장점유율, 성장률, 다각화 및 제품혁신 등 사업성과, 셋째, 주관적 지표로서 만족도, 근로생활의 질, 사회적 책임 등 조직효과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성과를 측정”하였다(Venkataraman & Ramanujam ,1986)

Stuart and Abetti(1997)는 “벤처기업의 성공을 주관적 성공과 객관적 성공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성공단계는 2단계 또는 3단계 이상과 연속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적 성공에 대비하여 종업원 수의 증가 등 사회적 기여와 기업의 학습과정 등 비재무적 성공을 표현할 수 있고, 성공이

계획 대비 실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족과 부족의 차원에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Stuart and Abetti, 1997)

또한 고상봉 외(2003)은 “벤처기업의 성공을 두 가지로 측정한 바 매출액, 고용성장률, 수익성, 자기자본수익률, 종업원 대비 매출액과 자산대비 매출액 등의 계량적 성공과 기대목표의 달성정도, 생존확률, 외부자본 조달능력, 종업원 만족도, 사회에의 기여 등 주관적 성공을 지표로 하고 리커트 척도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평균치로 기업의 성공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바 있다(고상봉 외, 2003)

Hughes(2006)는 “태동단계의 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고객에 대한 성과와 제품에 대한 성과로 나누고, 고객에 대한 성과는 고객유치와 유치된 고객의 유지로 다시 나누어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회사는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고객에 관심을 끌고 그 고객을 기본으로 하여 반복된 주문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성과에 대한 측정은 시장에서의 경쟁자 대비 상대적 우위점과 이를 통한 시장점유율의 달성을 기반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초기 창업 회사는 보통 한 두가지 정도의 주력 제품을 먼저 시장에 선 보인 후 점차적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ughes, 2006)

Covin(1991)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기업의 정확한 재무적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고 데이터의 비교와 해석이 어려우며 산업효과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Covin, 1991)

따라서 “창업 초기에는 CEO의 역량과 특성, 아이템의 독창성,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등 전략적·정성적 평가를 주로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동협(2013)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고객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수준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데, 재무적 성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재무적 측면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비재무적 성과 변수로 생산성, 고객만족,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변수를 활용”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기반의 제조기업이 비제조기업보다 비재무적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기업이 장기적 측면의 재무적 성과를 위해서는 비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한동협, 2013)

Denton, White(2000)는 “복합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BSC기반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고객의견평가, 고객충성도, 서비스 개선을 KPI로 하고 고객관점의 성과를 측정하고, 업무환경, 핵심업무수행시간, 브랜드 이미지, 서비스 개발을 KPI로 하여 내부프로세스 관점의 성과를 측정하였으며, 학습과 성장관점의 성과측정은 직원 이직율, 지식공유, IT 환경을 활용”하였다(Denton, White, 2000)

이러한 비재무적 성과는 IT 기술 기반의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지운, 강성민(2010)은 “IT 시스템 분야에서 재무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재무적 성과를 우선적으로 높여야 하며, 비재무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강성민, 2010)

즉,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선행 변수로 비재무적 성과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Stuart와 Abetti(1987)은 비재무적 성과를 직원 만족도, 사업 절차의 전반적 평가, 자본 유치 능력, 기업 생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tuart, Abetti, 1987)

Chandler와 Hanks(1994)와 이윤재(2006)는 비재무적 성과를 목표 및 비전 달성도, 성장 잠재력, 성과 만족도를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 제시하였다.

(Chandler, Hanks(1994), 이윤재2006).

본 연구에서도 재무적 성과보다는 비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창업 성과를 측정하였다. 왜냐면 초기 창업 기업은 재무적 평가에 대한 지표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고, 기업들이 재무적 상태의 공개를 꺼려하므로 제대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위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 하면서 주로 비재무적 평가 지표인 고객 인지도, 자금의 확보 용이성 정도, 창업의 진척도 ,고용 증가율등을 창업 성과의 지표로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창업 성과에 관한 선행 연구

앞에서 언급한대로 창업 초기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제대로 된 재무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이 재무자료에 대한 공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초기 창업 기업의 재무적 측정의 어려움에 대

한 대안으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측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성과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성도(2001)은 한국 벤처기업의 경영자 특성과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경영자의 특성을 학력, 기업가경험, 창업경험, 관련 산업에서의 근무경험 등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심리적 행위적 요인 및 리더십으로 형성되는 행태적 특성으로 나누고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홍성도,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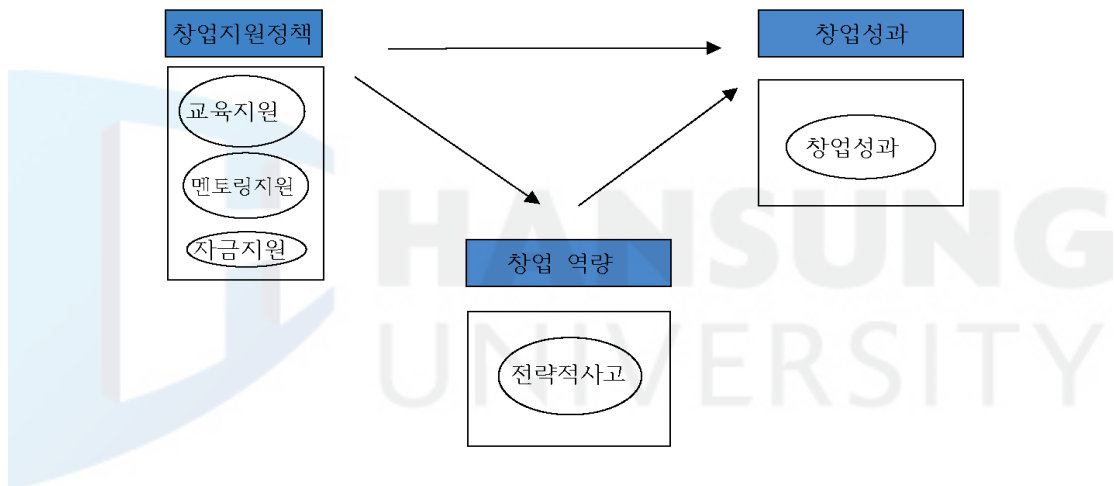
박상문(2004)은 “국내 벤처기업의 창업팀 특성, 기술전략 및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기존연구에서 제시되는 것과는 달리 창업팀의 규모, 역할완결성, 기술지향성은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하는 벤처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정도와 외부기술협력정도 및 기술전략과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기술경영자의 존재여부가 벤처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박상문, 2004).

또한 벤처기업의 기술 전략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창업팀의 구성특성, 창업인의 기술적 경험이나 배경에 따른 벤처기업의 기술전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최고 기술경영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여부가 벤처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외부기술 협력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상공인의 창업과정 특성과 기업성과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박춘래(2010)등은 “소상공인의 창업과정 특성을 사업계획 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 활용도, 입지 우월성, 업종차별화 정도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파악하고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박춘래, 2010)

제 3 장 연구 모형 설계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 본 이론적 연구들을 토대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들이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들에게 목적인 창업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역량 강화에도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해내는 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 모형

한해 수조원씩 창업지원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창업 실패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창업 열기는 기대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본 연구는 자금을 포함한 정책지원 자원들이 투입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긍정적 산출물들이 도출되는 지 지원 정책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 된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지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정책지원들은 수정 보완을 하여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한다.

제 2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근거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 모형을 토대로 독립변수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 역량과 창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지, 그리고 창업 역량이라는 변수가 창업지원정책과 창업 성과에서 유의한 매개 변수 영향을 끼치는 지 검증해보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3-1> 연구 가설

가설	x1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x1-1	교육강좌는 창업 성과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x1-2	멘토링은 창업 성과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x1-3	자금지원은 창업 성과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x2	창업지원정책이 정(+)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x2-1	교육강좌는 전략적 사고 능력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x2-2	멘토링은 전략적 사고 능력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x2-3	자금지원은 전략적사고 능력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x3	창업역량이 창업성과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x3-1	전략적 사고 능력은 창업 성과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추출된 변수와 척도를 참고하였고 대부분 선행 연구자가 제시한 변수와 척도를 그대로 구성하였으나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도 일부 있다.

가)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 변수인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 각 요인들은 박남규(2014)의 연구를 토대로 제시 된 것이며 세부적으로 그 외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창업에 관한 교육은 창업맞춤형사업,일반인 창업아카데미,각 대학의 창업아카데미,캠퍼스 CEO,일반창업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창업 교육의 변수는 박남규(2014), 정지호(2014), 김기호(2014), 박용호(2104), 남정인(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 강좌의 유용성 여부, 교육 강좌를 통한 창업자신감 향상,강좌의 체계성, 교육 강좌를 통한창업 지식과 정보 습득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창업 역량 강화와 창업 성과의 긍정적 효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나) 매개변수

본 연구는 남정인(2013), 2014(임아름), 김춘근(201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매개변수로 창업 역량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창의성, 조직관리역량, 전략적사고 능력, 기술적 역량, 시장반응성등을 창업 역량에 관한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략적 사고 능력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경쟁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량이다.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들에게 전략적 사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창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 성과 사이에서, 창업 역량 중 전략적 사고능력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끼치는 지 검증하였다.

다)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대해 김춘근(2014), 김지호(2014), 이병권(2014)등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창업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 기업의 경우 재무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고, 기업측에서도 비밀로 생각하며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covin(1991), Deton, White(2000), 한동협(2013)의 선행 연구에서는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우선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비재무적 지표를 창업 성과의 지표로 하여 창업지원을 받은 후 고객인지도, 창업진척도, 자금확보 용이도, 직원 고용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설문지 구성을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크게 총 4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검토되어지고, 타당성 조사와 신뢰도 조사를 통하여 변수 정제 과정을 거친 설문 항목들을 선별하여 연구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측정을 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제 1 그룹은 창업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으로 교육 강좌에 관한 4 항목, 멘

토링 지원에 관한 4항목 ,자금 지원에 관한 4항목 이렇게 총 12개의 질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제 2그룹은 창업 역량에 관한 질문으로 전략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4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제 3그룹은 창업성과에 관한 질문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 4그룹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성별,학력, 직장 경험등을 질문하는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3-2> 설문지 구성

구분	연구 변수	문항	선행연구
창업지원정책	교육강좌지원	4	Clark et al(1984),박남규(2014),김기홍(2014),한정화, 이명자(1998)
	멘토링지원	4	남정인(2013),박용호(2014)김기홍(2014)
	자금지원	4	Clark et al(1984),한정화이명자(1998) 윤방섭(2004) ²⁰⁾ 유연호(2008)
창업역량	전략적 사고능력	4	남정인(2013),임아름(2014),김춘근(2014)
창업성과	창업성과	5	김춘근(2014)정지호(2014),이병권(2014)
인구통계학적 특징	성별,학력,직장경험,업종,종업원수등 창업교육수강여부,창업여부	12	clant(1996) ²¹⁾ 박남규(2104)

20)윤방섭, “창업의지 결정요인 :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Vol. 17 No2, pp.89-110, 2004.

21) Crant, J. M.,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일정한 창업성과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살 이상의 성인들 중 정부의 지원 하에 교육 강좌, 멘토링, 자금을 받아 본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가하였다.

특히 중진공의 청년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40세 미만의 창업자들과 인천대 창업지원단의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참여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그리고 각 지자체에 개설 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10월20일부터 11월17일까지 27일 동안 총 350부가 온라인을 통하여 배포되었고 그 중 246부가 수거되었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첫째, 교육강좌 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지원을 받아 본적 있는 예비창업자나 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창업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둘째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성과의 사이에서 창업역량이 어떤 매개역할을 하여 창업성과를 향상시키는 지 알아보고자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통하여 수거된 자료는 SPSS 22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 작업을 한 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한 변수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역량의 매개변수 효과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 개념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 기준은 고유값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 α 값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채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 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 창업역량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실증 분석

제 1 절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중 남자는 246명중 200명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46명으로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성별

1.귀하의 성별은?					
		빈도	퍼센트	올바른 퍼센트	누적 퍼센트
구분	남자	200	81.3	81.3	81.3
	여자	46	18.7	18.7	100.0
	총계	246	100.0	100.0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응답자 중 40세이상이 246명중 152명으로 전체의 61.8%로서 가장 많은 비율이고 35세~40세미만이 그 뒤를 이어 20.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자 비율은 전체 246명중 38%로 나타나고 있다.

<표4-2>응답자 연령

2.귀하의 연령은?					
		빈도	퍼센트	올바른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연령대	25세~30세미만	10	4.1	4.1	4.1
	30세~35세미만	32	13.0	13.0	17.1
	35세~40세미만	50	20.3	20.3	37.4
	40세이상	152	61.8	61.8	99.2
	20세~25세미만	2	.8	.8	100.0
	총계	246	100.0	100.0	

학력 분포는 대학교 졸업이 48.8%로 가장 많고 석사가 25.2%로 그 뒤를 이었고 고졸 11.4%, 전문대졸 8.1%,박사는 6.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은 40세 이상이 61.8%,30세 이상이 33.3%로 30대 40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4-3>학력

3.귀하의 학력은?					
		빈도	퍼센트	올바른 퍼센트	누적 퍼센트
학력	고졸	28	11.4	11.4	11.4
	전문대졸	20	8.1	8.1	19.5
	대졸	120	48.8	48.8	68.3
	석사	62	25.2	25.2	93.5
	박사	16	6.5	6.5	100.0
	총계	246	100.0	100.0	

직장 경험은 전체 246명중 106명이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졌고 5년에서 10년 사이가 60명,24.4%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98% 정도가 직장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4>직장 경험

4.귀하의 직장 경험은?					
		빈도	퍼센트	올바른 퍼센트	누적 퍼센트
경험 년수	없다	5	2.4	2.4	2.4
	5년미만	33	13.0	13.0	15.4
	5년~10년미만	60	24.4	24.4	39.8
	10년~15년미만	42	17.1	17.1	56.9
	15년이상	106	43.1	43.1	100.0
	총계	246	100.0	100.0	

창업 경험 유무에 질문에 66.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어 응답자의 2/3정도는 창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창업 경험 유무

5.귀하의 창업 경험은?					
		빈도	퍼센트	올바른 퍼센트	누적 퍼센트
창업 경험	있다	164	66.7	66.7	66.7
	없다	82	33.3	33.3	100.0
	총계	246	100.0	100.0	

업력을 보면 246명중 102명 즉 41.5%가 1년에서 4년 사이 임을 알 수

있고, 7년 이상은 14.6%로 응답자중 85.4%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창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6>회사 업력

6.귀사의 설립 경과 년수는?					
		빈도	퍼센트	올바른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함	예비창업자	42	17.1	17.1	17.1
	1년미만	36	14.6	14.6	31.7
	1년~4년미만	102	41.5	41.5	73.2
	4년~7년미만	30	12.2	12.2	85.4
	7년이상	36	14.6	14.6	100.0
	총계	246	100.0	100.0	

교육 강좌 수강 경험은 59%가 3강좌 미만, 멘토링은 72.4%가 3회 미만, 컨설팅은 78%가 3회 미만, 자금 지원 경험은 53.7%는 경험이 있고 46.3%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제 2 절 변수의 신뢰성 검증 및 타당성 검증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타당도가 높아지면 신뢰도도 함께 높아 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분석을 먼저 수행하였다.

1) 타당성 분석

타당성(validity)이란 조사자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타당성의 종류에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기준타당성(predictive validity), 구성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 등 세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준개념타당성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개념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속성 다측정 방법 (multi-trait multi- method matrix)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은 수많은 변수들을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줌으로서 그 내용을 단순화시킨다.

본 연구의 측정 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적재치는 변수들의 중요도 정도를 나타낸다.

SPSS에서 실시하는 요인 분석을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치가 0.4이하이면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모든 측정 변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간의 선택 기준은 고유값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되며 0.5가 넘으면 아주 주요한 변수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0이상, 요인적재치가 0.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총 5개의 요인으로 구분 되었으며, 총 25개의 문항 중 이론 구조와 맞지 않는 항목을 제거 하고 21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4-7> 요인 분석

	구성요소				
	1	2	3	4	5
e2.자금지원 절차 간소성	.858	.112	.212	.137	.065
e3.자금상환방법 편리성	.843	.103	.180	.100	.024
e4.창업 자금 대출 조건 평이성	.790	.073	.220	.033	.031
e1.창업 자금지원 충분성	.732	-.045	.128	.401	.058
a4.창업 지식과 정보 제공	.061	.814	.141	.197	.112
a1.교육 강좌 필요성	-.091	.773	.121	.035	-.156
a2.교육 강좌통한 자신감 확보	.139	.772	.163	.280	-.048
a3.교육강좌 체계성	.197	.710	.158	.338	.047
K4.창업 진척도 향상	.055	.251	.794	.164	.026
K2.고객의 인지도 향상	.257	.318	.741	.144	.179
k1.창업 지원 자금 확보 용이성	.394	.128	.713	-.054	.059
k5.직원 고용 증대	.215	-.058	.699	.223	.220
K3.시장성 기술 확보	.183	.239	.676	.414	.214
b1.멘토링 충분성	.058	.146	.166	.851	.069
b2.멘토링 시스템 체계적 지원성	.173	.242	.174	.826	.158
b4.멘토의 창업 사전 지식 정보 보유 정도	.301	.394	.126	.710	.006
b3.멘토의 체계적 지식 보유정도	.128	.489	.186	.622	.131
h3.체계적 전략 기획력	-.054	.015	.088	.057	.868
h2.복잡한 상황 해결 능력	-.082	-.031	.051	.071	.861
h4.전략 톨 이해성	.100	-.061	.113	.157	.850
h1.미래 대비 전략성	.263	.061	.212	-.005	.757

*추출방법:프린시펄구성요소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맥스

a. 6 반복에서 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개념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와 같은 신뢰도척도를 계산한 값을 가지고 판단한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변수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남은 변수들을 가지고 변산 계산을 한다. 변수 계산후 생성된 새로운 변수는 회귀 분석, 평균차이 분석과 같은 추후 분석에 이용된다. 보통 크론바하 알파 값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가) 창업지원정책의 신뢰도 분석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4-16]과 같이 요인별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8>신뢰도 분석

요인명		문항수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창업지원	교육지원	4	.840 .774 .786 .774	.839
	멘토링지원	4	.874 .831 .876 .843	.889
	자금지원	4	.861 .806 .833 .866	.878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문항 제거없이 모두 분석에 사용한다.
단,알파값을 제거시 교육지원 문항 중 교육강좌의 중요성이 .839보다 높은 .840이 나왔으나미미한 차이이므로 제거하지 않는다.

나) 창업역량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값도 높게 나왔고, Alpha if item deleted 값도 모두 크론바하 알파값보다 낮으므로 모든 항목을 분석에 사용한다.

<표4-9>창업역량 신뢰도 분석

요인명		문항수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창업역량	전략적사고력	4	.860 .832 .825 .812	.869

다) 창업성과의 신뢰도 분석

<표4-10>창업성과의 신뢰도 분석

요인명		문항수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창업성과	창업성과	5	.856 .815 .830 .842 .857	.868

창업성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값도 높게 나왔고, Alpha if item deleted 값도 모두 크론바하 알파값보다 낮으므로 모든 항목을 분석에 사용한다.

제 3 절 가설 검증

1) 상관 관계 분석

논문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1사이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보통 ±0.4정도 미만이면 낮은 상관관계이고 ±0.9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이다.

<표4-11>상관관계 분석

연구단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강좌지원	4.0000	.73471	1.00				
멘토링지원	3.5366	.79262	.607**	1.00			
자금지원	2.5772	.84704	.264**	.414**	1.00		
전략적사고	3.7744	.66349	.042	.218**	.167**	1.00	
창업성과	3.4593	.82522	.480**	.501**	.507**	.299*	1.00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강좌지원과 멘토링 지원, 자금지원과 창업역량, 자금지원과 멘토링 지원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자금지원과 강좌지원의 상관관계수가 ±0.2이하이므로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이다. 즉 두 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

가) 다중 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고 종속 변수가 1개간의 인과 관계

를 검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기에 다중 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회귀 분석에서 검정하지 않았던 다중 공선성을 분석 결과에서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창업지원정책이고 그 내부 요인으로 교육강좌 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 지원이 있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창업성과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과 같이 표시되었다.

<표4-12>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창업성과	상수	.240		2.714	.007	
	교육지원 (가설1)	.070	.270	4.337	.000	.631
	멘토링지원 (가설2)	.069	.189	2.860	.005	.562
	자금지원 (가설3)	.059	.358	6.569	.000	.828
	R=.637 R ² =.406 수정된 R ² =.399 F=55.139 P=.000					

R이 0.637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다소 높은 상태이며, R²이 0.406으로 이는 독립변수인 교육강좌, 멘토링, 자금지원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강좌지원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t값이 4.337로 ± 1.96 보다 크고, 유의 확률(p값)이 0.000으로 $p < .05$ 이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멘토링 지원은 t값 2.860으로 가설2가 채택되었고, 자금 지원 역시 t값이 6.569로 가설3도 채택되었다.

즉 교육지원, 멘토링지원, 자금지원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창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 한계값이 0.1이하일때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위의 결과 공차한계값이 모두 0.1보다 크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위계적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의 일종으로서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종속 변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등 독립변수의 상대적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표4-13>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 결과

독립변수	β	t값(유의도)	공차한계
상수	-.177	-.570(.569)	
교육지원	.299	4.916(0.000)	.622
멘토링지원	.136	2.074(.039)	.539
자금지원	.339	6.385(0.000)	.821
전략적 사고력	.200	4.026(0.000)	.932
통계량	$R^2=.443$ 수정된 $R^2=.434$ $F=48.004$ $p=.000$ Durbin-Watson=2.329		

표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지원, 멘토링지원, 자금지원, 전략적 사고력등은 t 값이 모두 ± 1.96 보다 크며 p값이 모두 .05보다 작으므로 창업성과라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이 .443으로 4개의 변수가 창업성과의 변량을 44.3%로 설명하고 있으며 공차한계가 모두 .1보다 크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Durbin-Watson이 2에 가깝고 0이나 4에 멀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창업성과의 향상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

가하면 자금지원($\beta=.339$)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며 그 다음이 교육지원($\beta=.299$),전략적사고력($\beta=.200$),멘토링(.136)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 된다.

3) 매개 변수 효과 분석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매개변수의 효과 검정은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 유의 수준하에서 유의한 영향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 영향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4단계는 2단계 회귀분석 결과 도출 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값보다 커야만 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부분매개효과,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래 표와 같은 결과물을 산출하였다.

<표4-14> 매개효과 분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공차한계
상수	3.318	.650	-.177	
교육지원	-.131(-.145)	.340(.270)	.336(.299)	.622
멘토링지원	.223(.266)	.197(.189)	.141(.136)	.539
자금지원	.075(.095)	.348(.358)	.330(.339)	.821
창업역량(전략적사고력)			.249(.200)	.932
R ²	.068	.406	.443	
수정된R ²	.056	.399	.434	
F값	5.861	55.139	48.004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역량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교육지원과 자금 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멘토링 지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도 역시 멘토링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전략적사고력(창업역량)이 창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수 효과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의 표준화 회귀계수값이 3단계의 그것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차한계를 보았을 때 독립변수들에서는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국제적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기도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인원감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 역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큰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당면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7개의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을 통하여 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매년 창업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창업의 실패율은 줄어들지 않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청년들은 창업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꿈꾸며 창업은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위험한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40대부터 퇴사를 강요받는 중장년은 취업이 안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떠밀리듯이 치킨 가게 오픈 등 생계형 창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패로 말미암은 가게 부채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결국 그동안의 창업지원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 역량을 매개로 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창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창업기업의 성과와 창업지원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성과를 검증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들에 의해 지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고 지원정책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자들의 창업 역량 특성과 창업지원 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또는 과거에 정부의 창업프로그램에 참가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재 대학의 창업지원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지원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자,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17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하였으며, 246부를 각각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창업지원 프로그램 즉 교육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지원 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정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고, 창업역량이 창업지원과 창업성과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지를 매개회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지금처럼 단기적 효과에 급급한 창업 지원 정책은 정부자금 사냥꾼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먼저 창업에 관한 인식부터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창업 인프라의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중고등학교부터 창업에 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창업 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시스템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대비 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보다 효과적인 창업 분야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창업실패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창업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통일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창업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업 인식의 변화와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의 통일성, 그리고 지원 후 사

후 관리와 함께 창업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창업지원정책이고 그 내부요인으로 교육강좌 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 지원이 있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창업성과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교육강좌 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지원이 종속변수인 창업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강좌 지원이 창업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1은 검증 결과 t값이 4.337로 ± 1.96 보다 크고 ,유의 확률(p값)이 0.000으로 $p < .05$ 이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멘토링 지원이 창업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은 검증 결과 t값 2.860,유의 확률(p값)이 0.005으로 $p < .05$ 이므로 가설2는 채택되었다.

자금 지원이 창업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t값이 6.569,유의 확률(p값)이 0.000으로 $p < .05$ 이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 결과 창업성과의 향상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자금지원($\beta = .339$)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이며 그 다음이 교육지원($\beta = .299$),전략적사고력($\beta = .200$),멘토링(.136)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 된다.

매개변수의 효과 검정은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실시한 바, 매개변수인 창업역량은 독립변수 창업지원과 종속변수 창업성과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창업지원프로그램 즉 교육강좌 지원과 멘토링 지원,자금 지원은

창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성과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자금 지원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뒤이어 교육지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멘토링 지원과 창업 성과에서 전략적 사고력은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창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 중에서 창업성과에 대한 자금지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무래도 창업자들이 가장 애로 사항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단 지금처럼 사업계획서 평가 위주의 자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시장성 분석과 창업자의 역량 파악을 면밀히 한 후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멘토링을 통한 창업자의 역량 향상이 결국 창업 성과의 향상으로 연계됨이 검증되었으므로 추후 멘토링을 확대하여 창업자의 역량 향상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강좌 수강이나 자금 지원보다 멘토링을 통하여 창업자에 밀착하여 맞춤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원정책 중 어느것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표본 수가 크지 않아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246개의 설문응답 정보로는 창업자들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통

계 분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 향후 보다 확대된 설문 응답을 통하여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 응답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즉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취합하다보니 응답자에 대한 신분 확인이 어렵고 대면하지 않고 작성하기에 진정성에 일정 부분 한계가 노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경험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 하다 보니 정확한 응답자인지를 검증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설문의 태생적 한계로서 향후 대면을 통한 설문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설문 항목을 설정함에 있어 대부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주관적으로 선정한 항목도 있어 신뢰도나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추후에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주관적으로 선정하더라도 보다 정밀한 연구를 통하여 설문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넷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인지 모호한 프로그램도 있어 교육지원, 멘토링, 자금지원으로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멘토링과 컨설팅은 분명 개념이 다르나 현장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변수 선정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육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사용한다면 그 안에 강좌는 물론 멘토링이나 컨설팅도 포함될 수 있어 향후 세밀한 연구와 함께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병서, 김계수. (2005). 한글 SPSS 12K 사회과학통계분석. 『SPSS 아카데미』 .
- 강병오. (2011). 「중소기업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강상미. (2002). 「창업자·환경·경영전략·조직특성이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강성두, 강영순. (2012).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조직구성원의 목표 지향성이 조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집.
- 강성일. (2007). 「관광중소기업 소유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강순빈. (2012). 「창업자의 창업동기 및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사전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
- 고봉상, 용세중, 이상천. (2003). 벤처기업의 성과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
- 구언희. (2006).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의 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 김기홍. (2014). 「창업 멘토링 교육 요인이 창업 멘토링 교육 만족도와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민수. (2011). 「창업보육기업의 창업자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상순. (2011).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세중. (2005). 「주요국 창업제도의 비교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중소기업연구원.

- 김완재. (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창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밭대학교.
- 김윤석. (2005). 「한국 청년실업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 김용집. (2014). 「창업지원 정책과 고용률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김용태. (2009). 「창업교육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재욱. (2013).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정자. (2011).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과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충주대학교.
- 김종하. (2009). 「청년창업자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형철. (2009).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곽동신. (2016).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권미영. (2010). 「기업가 특성, 기술능력 및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남정인. (2013년). 「창업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목영두. (2011).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문우식. (2010).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 민경룡. (2010). 「창업컨설팅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박경문, 박종관. (1995). 「창업가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16(1), 305-321.

박남규. (2014년).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박명수. (2011). 청년창업의 기대와 현실, 대한민국 청년: 창업에 길을 묻다. 『한국 창업포럼 주제발표 자료집』, 59-71.

박상용. (2004). 「벤처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구성원, 임파워먼트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모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선영. (2013). 「청년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 시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 대학교.

박용호. (2014). 「창업 멘토링이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박재환, 김용태. (2009). 창업교육 만족도 및 참여 동기가 창업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2(2), 959-977.

서창수. (2002). 「한국 벤처기업 경영패턴의 변화에 관한 연구」 기업의 성장 단계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송은실. (2011). 「청년창업자의 창업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송준일. (2009).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안태욱. (2012). 「청년 창업가의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양희순. (2002). 「한국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양현봉. (2011).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자료』.

용세중. (2003). 「창업이론 개발을 위한 통합 개념모델」. 박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유연호. (2009).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요인 그리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위봉수. (2012).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영성과 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 이승배. (201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의 사회적자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재석. (2015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 이지영. (2009). 「고학력 청년층의 고실업현상의 원인과 대책」.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 이춘우. (1999). 「조직앙트라프러뉴십의 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흥주. (2015). 「창업교육장사의 역량이 학생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임아름. (2015년).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장영주. (1996). 「창업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57-63.
- 장태옥. (2011).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호서대학교.
- 전창수. (2011). 「기업 재무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배재대학교 컨설팅대학원.
- 정지호. (2014).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 조형래. (1995). 「창업인의 특성, 제품혁신성 벤처기업 경영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국과학기술원.
- 지영준. (2014). 「창업컨설팅이 창업성과와 창업성과에 따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한길석. (2007). 창업교육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 173-198.
- 홍성도. (2001).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79.
- 홍세희. (2007). 경영학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경영학 연구』.

2. 국외문헌

- Amabile, T. M. (1996).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Co: Westview Pres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 – 211.
- Baron, R. A. (2009). The Role of Affec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 328–340.
- Barney, Jay B. and Edward J. Zajac (1994). Compet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Toward an Organizationally–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S1), 5–9.
- Barringer, B. R. (1995). *The Performance Implications of Achieving a Fit Betwee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s*.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Bateman Thomas S. and J. Michael Crant (1993).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A Measure and Correlat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2), 103–118.
- Baum, Robert J., Edwin A. Locke, and Ken G. Smith (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ird Barbara (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3), 442–453.
- Birley, S. and Norburn (1987). Owner and Manager: The Venture 100 vs. Fortune 500.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351–363.
- Birley, S., & Westhead, P. (199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7–31.
- Boyatzis, R.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 Publishing.
- Brush, C. G., T. S. Manolova and L. F. Elderman (200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Business*

- Vneturing* 23(5), 594–966.
- Burgelman Robert A.(1983).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Management: Insights from a Process Study. *Management Science*, 29(12), 1349–1364.
- Buss David, M.(1987).Selection, Evocation and Mani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214–1221.
- Cardon, M.S., Wincent, J., Singh, J., & Drnovsek, M. (2009). The nature and experience of entrepreneurial pas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34, 511–32.
- Case, John(1989).The Origins of Entrepreneurship.Inc. Magazine, June, 49–62. Carsrud, A., and M. Brannback.(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 Carsrud, A. and M. Brannback, Eds,(2009).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Opening the Black Box*. Heidelberg: Springer.
- Carter N.M.,W.B.Gartner, Kely G.Shaverand E.J.Gatewod(2003).The career reasons of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18, 13–39. Cooper, A. C. and W. C. Dunkelberg(1987).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11–23.
- Cooper, A.C.(1986).*Entrepreneurship and Hight Technology*.In D.L Sexton, and R.W. Smilor(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 Ballinger, 155–168.
- Covin, I. G. and D. P. Slevin(1990).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 123–135.
- Davidsson, P.(2003).*Th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Some Suggestions*. *Cognitive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6, 315–372.
- Davidsson, P.(2006).Nascent *Entrepreneurship: Empirical studies and Development*.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2, 1–76.
- Davidsson, P.(2005).Paul Davidsson Reynolds: *Entrepreneurship Research Innovator, Coordinator and Disseminator*. *Small Business Economics*, 24,351–358.

- Davidsson, P.(2007).Metho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Entrepreneurship.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 287–324.
- Delmar, F. & Shane, S. (2004). Legitimizing first: Organizing activities and the survival of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 385–410.
- Diochon, M., Menzies, T.V., & Gasse, Y. (2005).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activities and new venture emergence: A longitudinal study of Canadian nascent entrepreneur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nterprise Development*, 2, 408–26.
- Elfving, J.(2008). *Contextualiz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ultiple Case Study on Entrepreneurial Cognitions and Perceptions*. Turku: Abo Akademi Forlag.
- Farmer, S. M Tierney, P and King-McIntyre, K.(2003).Employee Creativity in Taiwan: An Application of Role Identity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6, 618–630.
- Gartner, W. B.(1989).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27–37.
- G. N., & Jansen, E. (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설문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창업역량을 매개변수로-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설문지 작성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창업가들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 역량을 매개 변수로 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오니 평소에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순수 학술연구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응답자 자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모든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 관련 법률에 의거 철저히 보호되오니 보다 많은 관심으로 성의껏 끝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좋은 연구 논문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대 지식서비스 & 컨설팅 대학원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지도교수 : 박현우

연구자 : 김종식

문의 사항: E-mail) gagalin951@naver.com Tel) 010- 7499-0965

1.다음은 귀하(귀사)의 정부 지원 창업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나는 창업에 관한 교육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나는 교육강좌를 통하여 창업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겼다					
3)나는 교육강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교육강좌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2.다음은 귀하(귀사)에 대한 정부의 멘토링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창업가 대상 멘토링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2)멘토링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3)멘토들은 창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갖춰져 있다.					
4)멘토들은 나의 창업에 관해 충분한 사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3.다음은 귀하(귀사)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필요한 만큼 이뤄지고 있다.					
2)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대체로 간소한 편이다.					
3)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상환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하다.					
4)정부의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4.다음은 귀하(귀사)의 창업 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나는 미래에 대해 미리 잘 대비하는 편이다.					
2)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잘 제시하는 편이다.					
3)나는 어떤 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략을 잘 세우는 편이다.					
4)나는 전략에 관한 다양한 톨을 잘 이해하고 있다					

5.다음은 귀하(귀사)의 창업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금 조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2)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					

객 인지도가 상승하였 다					
3)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 장성있는 기술 확보가 용이 해졌다					
4)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후 창업의 진척도가 상승하였다					
5)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후 직원의 고용이 늘 어났다					

6. 다음은 귀하(귀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①20세~25세 미만 ②25세~30세 미만 ③30세~35세 미만 ④35세~40세 미만 ⑤4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고졸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석사 ⑤박사

4) 귀하의 직장 경험은?

①없다 ②5년 미만 ③5년~10년 미만 ④10년~15년 미만 ⑤15년 이상

5) 귀하의 창업 경험은?

①있다 ②없다

6) 귀사의 설립 경과 년수는?

①예비창업자 ②1년미만 ③1년~4년미만 ④4년~7년미만 ⑤7년이상

7) 귀사의 종업원 수는?

①1인 ②2~5인미만 ③5인~10인미만 ④10인~20인미만 ⑤20인이상

8) 귀사의 전년도 매출액은?

①5천만원 미만 ②5천만원~1억원 미만 ③1억원~3억원 미만 ④3억원~5억원 미만 ⑤5억원 이상

9) 귀하의 창업 업종은?

①제조업 ②전문/과학/기술/IT ③보건 및 사회복지 ④예술/스포츠/여가 ⑤숙박/음식업 ⑥도매 및 소매(온라인 쇼핑몰 포함) ⑦기타:

10) 귀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강좌를 몇 과목 수강해보셨습니까?

- ①3강좌미만 ②5강좌미만 ③7강좌미만 ④10강좌미만 ⑤10강좌이상
- 11) 귀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멘토링을 몇 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①3회미만 ②5회미만 ③7회미만 ④10회미만 ⑤10회이상
- 12) 귀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몇 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①3회미만 ②5회미만 ③7회미만 ④10회미만 ⑤10회이상
- 13) 귀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 14)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창업강좌 ②창업멘토링 ③창업자금 ④창업컨설팅 ⑤기타: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olicy on the Establishment Performance -With the entrepreneurial capacity as a parameter-

Kim, jong sic

Consulting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After the Lehman shock 2009 international economic recession, this was a prolonged domestic slump, Gyeonggi-do, within the confines of. Race-conscious businesses are downsizing, which is constantly changing and new hires also reduce unemployment in a situation that the problem is the Government's point of view, the big social problems to be solved.

These problems facing the Government are the creation of the economic slogan to match job creation and activation of 17 Innovation Center established by smb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corporation, founded through a variety of support. In addition, each College as well as high school and even to proceed with a program on entrepreneurship,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related projects each year to carry a lot of budget commitments. However, does the failure rate of entrepreneurship to create job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without even a small stop. the majority of the youths including college students also have established a stable job rather than dreaming of entrepreneurship is far

from thinking of the story of the country are considered a dangerous gamble. Also from the leaves to the 40s forced mature is not left by eating mustard weeping employment gets pushed open to established such a subsistence as the chicken and their failure because household debt, an increase of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s not greater effectiveness of its start-up support. eventually there is a conclusion leading to a fundamental shift in the Government's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is necessary to start this research at the thought.

This study supports the Government's entrepreneurship policy entrepreneurship capabilities and its impact on the entrepreneurship as a performance analysis an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Koh now have two purposes, to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through an empirical study on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verify the performance of support of the rapporteur. This study supports business start-up support program the founder or founders who participate in and support performance impact by looking into support policy research would focus on, an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ounder of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reflections and literature at home and abroad, that are related to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research based on the model set up by the investiga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and to introduce the long-term foundation of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o educate entrepreneurship specialists regular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analyze whether the output is properly calculated and to allocate resources to more effective start-ups. First of all, in order to reduce the fear of start-up failure, policy support and supplement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start-up failure, and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lack of consistency and unity because the policy support for start-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more thoroughly about the change of entrepreneurial awareness, the establishment of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the unity of entrepreneurship support.